

[제47회 전기의 날 기념]

2012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 '제47회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2012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4. 18 ~ 20, 강원도 평창)이 산·학·연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 김무영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국제적인 선진기준으로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기준의 보강과 세계적인 표준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지식경제부 최형기 전력산업과장



▲ 한국전기연구원 김호용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전기규정(KEC) 선진화와 기술기준의 거듭된 발전을 염원했다.



▲ 전기협회가 의욕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기규정(KEC) 제정협력 양해각서 체결
 (좌측부터 이유중 한국전기공사협회 상근부회장 · 김무영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 김용권 기초전력연구원 원장 · 유상봉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 특별세션 I
 9·15 순환정전 대책
 (조종만 한국전력거래소 소장)



▲ 특별세션 II
 세계 초고압 송전현황과 사업화 방안
 (이동일 한국전력공사 소장)



▲ 특별세션 III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의 성공적 추진방안
 (김관덕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유공자 11명에게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이보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 한국전기신문사(사장 이경춘)와 한국전력공사 김병숙 처장이 각각 단체와 개인부문 감사패를 받았다.



◀ 한전KDN, KD파워 등 총 12개 업체의 전력산업 전시부스를 Tour하고 있는 내외귀빈



▲ 부대행사로 실시된 '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숍'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 총 4개 전문기술세션에서 41개 연구내용이 발표되고 토론됐다.

2012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성료

-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기술기준 선진화방안 모색
- 한국전기규정(KEC) 제정협력 양해각서 체결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겸)는 '제47회 전기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강원도 평창 소재 보광휘닉스파크에서 '2012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개최했다.

매년 4월 10일 전기의 날을 기념해 마련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은 국제표준의 제·개정 사항, 신기술·신공법 개발, 전기안전 향상기술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을 널리 홍보하고, 전기업계 현안사항을 도출, 개선하여 전기설비의 안전 및 공중의 안전과 전기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기협회와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4개 단체가 '한국전기규정(KEC) 제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실시됐다.

주요 행사로는 ▲특별강연(9.15 순환정전 대책, 마이크로그리드 동향 등)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설명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세션 ▲발전설비(화력, 용접, 수력)기술기준 세션 ▲신재생 및 지능형전력망 기술기준 세션 등이 열렸다.

또한, 전력산업 발전에 큰 공을 세운 11명의 전기인들에게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보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용접분과 위원장)는 공로패를, 김병숙 한국전력공사 처장(개인)과 한국전기신문사(단체)는 각각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한편, 산·학·연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전기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명실공히 전력산업계 최대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KEA